

못자리

4월



제 1711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4월은 '수원교구' 성지들을 소개할게요!
'은이성지' - 프랑스 선교사로서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모방(Maubant) 신부님이
당시 15세였던 김대건에게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준 곳
'천진암 성지' - 평신도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여 신앙을 깨닫고 교회를 세운 곳이며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된 곳
'미리내 성지' - 신유박해와 기해박해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던 교우촌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묘가 있는 곳
못자리 친구들도 봄을 맞이하여 자연 속 성지로 한 번 떠나볼까요?

오늘의 복음

4월 6일 사순 제5주일 <요한 8,1-11>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2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4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6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7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8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9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10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11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이한결 스테파노

2002년 또는 2003년이었을 거예요.
안계에서도 7명이 첫영성체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떠들다 혼나던 기억밖에 없지만,
이때부터 받아 모시기 시작한 성체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시절의 아이들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우 리 들 이 야 기 ★



★태화동 성당 4학년 이승준 하상 바오로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죄를 단죄하기 보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분히 죄를 용서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똑같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분히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도기를 바라봅니다.



★태화동 성당 5학년 이경미 정혜 엘리사벳

오늘의 복음

4월 13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루카 23,1-49>

그때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1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2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3 ○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4 ○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5 ○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 "이자는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6 ○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래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7 예수님께서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8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9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11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12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13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14 그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15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오.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16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17)·18 ○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 "그자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19 ○ 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20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21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2 ○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 그러자 23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24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26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27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오늘의 복음

28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29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30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 다오.' 할' 것이다. 31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32 ○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34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다.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36 ○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40 ○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43 ○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44 ○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46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47 ○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48 ○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49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답3 퀴즈

오늘 복음에서 **죄와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오늘의 복음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 <요한 20,1-9>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씻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달의 생활성가

사랑의 송가

4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 대축일이 있어요.
부활의 숭고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해요.



@종려 유투브 - 열일곱이다

우 리 들 이 야 기 ★



★하망동 성당 3학년 전수민 안젤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짐 어렵지만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알렐루야!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하망동 성당 6학년 이유성 라파엘

오늘의 복음

4월 27일 부활 제2주일 <요한 20,19-31>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도시

베들레헴 (Bethlehem)

- 현재 팔레스타인의 도시. 예루살렘 남쪽 7km에 위치한 작은 도시
- 히브리어(בֵּית לֶחֶם)로 '빵의 집', 아랍어(مَرحَل تَيْب)로는 '푸줏간'을 뜻함.
-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음(미카 5,1)
- AD330년 콘스탄틴황제에 의해 세워진 후 십자군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름.
- 구약의 베들레헴 :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창세35,19), 다윗왕의 고향(1사무 16,1-16)
- 신약의 베들레헴 : 예수님의 탄생지(마태2,1-2)

퍼즐

가로세로

| | | | | | | | | | |
|---|---|---|---|---|---|---|---|---|---|
| 명 | 칭 | 예 | 루 | 살 | 렘 | 예 | 언 | 증 | 인 |
| 목 | 분 | 령 | 혼 | 활 | 자 | 비 | 유 | 거 | 정 |
| 적 | 화 | 영 | 부 | 고 | 통 | 선 | 동 | 광 | 철 |
| 두 | 구 | 실 | 독 | 수 | 무 | 덤 | 영 | 야 | 바 |
| 개 | 나 | 리 | 고 | 난 | 갈 | 릴 | 래 | 아 | 요 |
| 헛 | 소 | 리 | 빈 | 말 | 기 | 제 | 속 | 성 | 르 |
| 방 | 문 | 감 | 표 | 징 | 용 | 사 | 죄 | 지 | 단 |
| 행 | 복 | 옥 | 정 | 글 | 강 | 서 | 번 | 뇌 | 목 |
| 포 | 도 | 나 | 무 | 은 | 알 | 파 | 성 | 숨 | 자 |
| 계 | 명 | 찰 | 하 | 혜 | 오 | 메 | 가 | 권 | 세 |

1.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OO**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요한 8,6>
- 핑계를 삼을 만한 재료.
2.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OO**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루카 23,2>
-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
3.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OOO**처럼 여겨졌다. <루카 24,11>
- 실속이 없고 미덥지 아니한 말.
4.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OO**해 주면 그가 **OO**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3>
-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줌.
5.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OO**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요한 20,30>
-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주간 퀴즈

<1주간> : 사순 제5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예수님께서 가신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올리브산 ② 백두산 ③ 지리산 ④ 한라산

2. 오늘 복음을 읽고 괄호를 채워 보세요.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스승님 ()은 어떠하십니까?”

<2주간>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 ① 당신이 ()들의 임금이오?
② ()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③ ()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2. 오늘 복음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 ①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기적 /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②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거친 /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③ 예수님, (하느님 /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못자리 카페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3주간> : 주님 부활 대축일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대축일은 무엇일까요?

- ① 주님 성탄 대축일 ② 주님 부활 대축일 ③ 성모 승천 대축일 ④ 주님 공현 대축일

2. 오늘 복음을 읽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마리아 막달레나 ② 마리아 ③ 시몬 베드로 ④ 야고보

<4주간> : 부활 제2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로마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② 예수님께서 당신의 두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③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벌을 받을 것이다.
④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 오늘 복음을 읽고 O,X를 고르세요.

- 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O,X)
② 사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O,X)
③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O,X)

당첨자

2월 09일 정답자

화 령 김태규

2월 16일 정답자

봉 화 김성준 석원준

2월 23일 정답자

모전동 채승현 이슬아

3월 02일 정답자

북 면 현규진



알림판

◆ 5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5월 4일 : 정상동 성당
- 5월 18일 : 점촌동 성당

(※ 원고는 4월 1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최양업 신부님 그림과 글 공모

- 최양업 신부님 생애가 궁금하시다면? →

(※ 그림과 글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유튜브 다큐길
한국인 최양업_사랑으로 길을 걷다